

로컬리더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군산시가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초입부에 재해 문자 전광판을 설치 운영한다.

서해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작년 한 해 30여회의 풍랑특보가 발효된 바 있으며, 특히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으로 항상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12월 29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초입부(옥도면 신시도리 256번지)에 1억7000여만 원을 투입해 재해 문자 전광판을 설치하고 시합 운영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 시스템과 연계해 기상특보 발효와 같은 재난지해 정보를 동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고군산군도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군산시가 지난 6일 열린 2017년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나섰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한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92명의 신청자를 접수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39명, 시간제 12명,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76명, 특화형 인버서 8명 등 총 133명을 선발, 12개월 동안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저소득층 후원금전달 줄이어

익산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기업과 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나정형외과(원장 김동철)는 지난 6일 익산시장과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김동철 원장은 "익산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대상자나 학생들에게 작으나마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오가닉코리아(대표 최란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원을 기탁했다.

최란희 대표는 "익산시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되고 싶다는 기탁의 뜻을 전했다."

/익산=장영원기자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상권 부활 지역경제 이바지

구도심 내 낙후지역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군산시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산시는 2014년 국토부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에 선정된 이후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근대건축물 보존·정비사업, 근대건축테마거리조성사업, 골목길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총 11가지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했다.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개념은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해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시는 2014년부터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타 지역 선진지 견학, 협동조합 설립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지역주민은 3대 문화운동 전개, 시민문화체험공간 확보, 협동조합 설립, 관광상품 개발 사업 등을 해왔다.

특히 지역주민이 해낸 사업들은 행정으로부터 예산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그 의미가 크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지구내 상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홍콩스럽던 공가에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고 기존의 상점들도 리모델링을 통해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전에 쇠퇴해 가던 원도심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민들도 이러한 변화를 반기고 있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90여 곳(2014년 25건, 2015년 21건, 2016년 45건)의 상가가 공개 입점 및 리모델링 등으로 새 단장을 볼 겨를이 거리가 환하게 밝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권 부활은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50여개의 다양한 업종이 공가에 들었으며, 40여개의 상가들이 업종을 바꿔 새 단장하고, 건물 신·증축이 이루어져 건축경기도 좋아지고 있다.

이처럼 상권이 부활하고,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불거리가 늘면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전 62만 명이던 군산 관광객은 사업 착수 1년이 지난 2015년에 135만 명으로 두 배 넘게 경증

뛰었으며, 지난해에는 200만 명의 관광객이 군산을 찾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올해 도시재생사업 시작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쉼터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블록단위 주거재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내 예술가와 주민이 협력하여 근대디자인 골목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군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군산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쇠퇴한 단과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제2, 제3의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2017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경제활성화 등 3대 핵심과제 논의·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등 공유

군산시가 지난 6일 오전 시청 민방 위상환실에서 문동신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 읍면동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17년도 시정운영의 큰 방향이 될 3대 핵심과제인 경제활성화·관광광역화·어린이행복에 대해 각 부서별 수립된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군산으로 유입한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근대역사경관 문화 빛거리 조성 등을 포함한 신규과제 85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EU군산 확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등의 계속과제 450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2건에 대한 처리계획 등 총 737건이 대상이다.

보고회를 통해 문동신 시장은 "군산시는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와 200만 관광객 시대 개막, 유네스코 이동전화도시 인증,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확정 등 주요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지축을 흔들 수 있는 군산조선소의 도크폐쇄 우

려로 시민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 것에 공감한다"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논의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앞장 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주요 업무에 대한 정책공유와 소통을 강화한만큼 부서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2017년 군산시가 추진할 핵심과제에 경제활성화 분야, 관광광역화 분야, 어린이행복 분야 등이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병원,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성료

원광대학교병원 운영 전북금연지원센터가 열고 있는 2017 1차 전문치료형 금연 캠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문치료형 금연 캠프는 금연 의지는 있지만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연에 여러 차례 실패했던 중증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형 금연 치료다.

2016년에 이어 정유년(丁酉年) 올해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원광대학교병원 내에서 진행됐다.

전문치료형 금연 캠프는 체계적인 금연교육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흡연으로 나빠진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금연 효과가 입증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흡연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높은 인기와 더불어 참가율도 늘고 있다.

이번 1차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 참가한 김00(58세) 남 익산시 거주씨는 "담뱃값도 많이 오르고 흡연으로 인해 나빠진 건강을 지

을 결심하면서 이번 금연캠프에 지원했다. 여러 가지 금연강의와 프로그램 등으로 자신감을 얻었으니 이대로 금연에 성공 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짐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 참가했던 흡연자의 65%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밝혀 금연캠프가 중증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원광대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는 이번 1차 전문치료형을 시작으로 3월까지(2차: 1월 16~20일, 3차: 2월 6~10일, 4차: 2월 20~24일, 5차: 3월 20~24일) 집중적으로 캠프를 운영한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 대한 문의는 방문(원광대학교병원 외래관 1층) 및 전화(1833-9030 또는 063-859-2400,2403)를 통해 가능하다.

2015년 6월부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으로 시작된 4박 5일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전국 18개 시·도별로 지정받은 지역별 금연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

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새해 금연

/익산=장영원기자

군산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군산시가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만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군산시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가구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입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군산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362세대에 29억3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40가구에 2억74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454-4243)로 문의하면 되며, 세부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A large promotional graphic for Gunsan City.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city with a lighthouse and a young girl in the foreground. The text includes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and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Logos for 'Dream Hub GUNSAN' and '군산시 GUNSAN CITY' are also present.